바블리 탈무드

오렌 코헨

하잘의 의견들

탈무드의 정수

-

개념

바바 메찌아 22장 알레프

게마라, 라쉬, 토싸포트

-

개념

게마라의 토론은 “예우쉬 쉐-로 미다앝”라고 하는 원칙에 기초한다.

“예우쉬 쉐-로 미다앝”은 잃어버리거나, 의도치 않게 두고 온 물건의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전제되어지는 개념이다.

라쉬

우리 앞에 있는 논쟁점은 가치있는 물건이 그 물건의 소유주 부재시에 남겨져있을 때 혹은 허락없이 그것을 사용할 때, 인간의 내적인(솔직한) 의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이다.

이 쟁점에 대해, 게마라에서 두 가지 의견들을 목격할 수 있다.

첫째, 아바예의 의견은 “예우쉬 쉐-로 미다앝”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라바의 의견은 “예우쉬 쉐-로 미다앝”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게마라

게마라에 쓰여있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주가 알지 못한 채로 그의 소유물을 헌납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그 소유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라쉬

게마라

어떻게 ‘당신은 더 좋은 것을 헌납하셨어야 합니다’라는 주인의 선언이 선한 의지인지 혹은 비난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쉬

게마라

헌납은 소유주가 알지 못 한채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헌납했다는 사실이 소유주에게 알려졌을 때, 실제로 소유주는 선한 의지를 발견하고 그 선한 의지는 반드시 헌납한 사실에 대해 소유주가 알게된 순간부터가 아니라 헌납을 한 순간부터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라쉬

게마라

게마라는 결론내린다: 소유자를 대신한 전달자라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소유주와 전달자 사이의 관계가 우발적인 관계가 아닌 친숙함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불확실한 것은 전달자에 의해 헌납된 수확물의 크기와 종류이다.

게마라

전달자의 의견과 소유주의 의견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 연관성은 주인과 전달자 사이의 합의된 이해를 나타낸다.

라쉬

소유주가 전달자를 임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마라

소유주가 전달자를 임명하고, 소유물의 헌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주었다.

대개 일반적인 사람은 소유한 것의 적당한 수준의 수확물을 헌납한다라고 가정한다.

우리의 논쟁점에서는, 전달자가 더 훌륭한 수확물을 헌납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인이 도착해서 전달자에게 묻는다 - 왜 그것보다 더욱 더 가치있는 것을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만약 정말 더욱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주인의 긍정적인 의도는 명백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헌납은 효력이 없게 된다.

게마라

수확물을 먹어도 된다는 소유주의 구두 합의는 그 수확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 것인가?

게마라

현재 논의된 경우, 상대방에게 수확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소유지 주인의 합의는 불쾌감을 주고싶지 않은 감정, 즉 곤란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먹는 것은 소유주의 자유로운 의견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논쟁점으로부터 도출되어진다:

개인의 돈, 소유물, 재산의 사용에 합의한다는 언급은 반드시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즐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후 관계와 상황, 특히, 소유주가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표현했을 때의 지위와 자유에 대해 검토해보아야한다.

용어해석

הכוונה: 관념, 의지, 무엇을 말할 때의 성향 |

תא - שמע: 와서 들으라 |

"כלך אצל יפות": 당신은 더 좋은 수확물을 헌납했어야 했습니다 |

אמאי: 왜 |

בעידנא~ 때, ~ 한 당시에 : |

הוה: ~ 이었다 |

תרגמה: 그것을 설명하다/해석하다 |

אליבא~에 의하면/따르면 : |

דשויה: 지명하다/임명하다 |

הכי נמי מסתברא: 이것은 또한 이치에 맞다/이것은 또한 명백해지다 |

דאי סלקא דעתך: 만약 그것이 생각난다면 |

מי הויא: ~일까? |

הכא במאי עסקינן: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

זיל: 가라!/가시오! |

מהני: 이것들 |

אקלעו: 도착했다/도착하게 됐다 |

בוסתנא: 과수원 |

אייתי: 가져오다 |

אריסות: 땅의 소유주와 소작인 사이의 협정/계약 |

ושדא: 뒀다(두다의 과거형)/놓다 |

קמייהו: 그들 앞에 |

אדהכי: 그 동안에 |

אתא: 왔다 |

אשכחינהו: 그들을/그것들을 찾았다 |

אייתית: 당신이 가져왔다 |

שפירתא: 그 아름다운 것들 |

השתא: 지금 |

הכי: 이렇게 |

וניחא ליה: 그에게 편안한/쉬운 |

הכא: 여기 |

כסיפותא: 불쾌감/곤란함.

하잘의 의견들은 탈무드의 논쟁점들을 통한 근본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영적 보고입니다. 이 소책자는 탈무드의 논쟁점으로 비롯된 주요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소책자에는 문자적인 설명들, 그리고 타나임과 아모라임의 다양하며 흥미진진한 의견들과 논쟁점의 원리들을 강조하기 위한 실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논쟁점은 개인이 본인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 말 그대로의 표현과 내재된 진심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금지된

의심스러운

허락된

좋은 수확물

보통의 수확물

간소한 수확물

주인

전달자

소작인

이메일: orencohen101@gmail.com

©모든 권리는 예루살렘의 오렌 코헨에게 있습니다. 이 출판물 또는 그 일부의 어떠한 부분도 복제, 복사, 스캔, 기록, 번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광학 방식 또는 기계식 전자 매체를 통해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출판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자의 진술 및 서면 허가없이 전적으로 금지됩니다.